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김정겸^{1*}, 신현숙²

¹충남대학교 교육학과, ²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Play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Resilience

Kim Jeong Kyoum^{1*} and Shin Hyun Sook²

¹Dept of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²Pandong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

요 약 본 연구는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유아 4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주2회 7주간 전래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일반적인 바깥놀이 활동을 한 비교집단 유아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주도성과 협조성, 사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래놀이 활동이 일반적인 바깥놀이 활동보다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의 회복탄력성은 일반적인 바깥놀이 활동을 한 비교집단 유아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충동억제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자기 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play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resilience, 44 children were used in a study in the Korean traditional play program. The program was held 2 times per week for 7 weeks and was divided into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executed Korean traditional play in comparison to the ordinary outside play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in the sub-factors of social abilities of scrupulosity, cooperation and sociability; it found that Korean traditional play had a greater positive influence on children's social skills in contrast to ordinary outside play. Also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li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executed Korean traditional play and the experimental group that executed ordinary outside play. This shows there is a positive effect in the increase in resilience from Korean traditional play on young children.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nly resilience sub-factors of the ability to control emotion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control impulse, optimism, and problem solving ability, empathy skill, efficacy and active participation to challenges. In other words, Korean traditional plays had a positive effect on a sub-factor of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resilience, emotional control.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Play, Resilience, Social Competence

*Corresponding Author : Kim Jeong Kyoum(Chung-Nam Univ.)

Tel: +82-10-8956-6480 email: jgkim426@cnu.ac.kr

Received November 15, 2013 Revised (1st December 3, 2013, 2nd December 10, 2013)

Accepted January 9, 2014

1. 서론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잠재된 능력을 표출하고 확장해 가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한다[1]. 유아는 천성적으로 놀이하기를 좋아하며, 누가 일부러 놀거리를 마련해 주거나 놀이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도 유아들은 일부러 놀이를 만들어가며 논다. 단현국[2]은 놀이는 유아들의 학습활동이자 생활 그 자체로 유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놀면서 보낼 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 주위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반복으로 지적, 정의적, 신체적, 사회 정서적 발달과 창의성 발달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김은경[3] 또한 유아는 또래와의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직접교수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유아의 경험과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적인 놀이 경험을 통하여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아들의 놀이는 그 유아가 속한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한국 고유의 전래아동놀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 특징을 고려하고 발달과업의 성취를 돕도록 기능한다는 점에서 발달적 가치가 있다[4]. 또한 전래놀이는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고, 신체적인 활동을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언어발달을 촉진하며, 사고발달을 통한 인지적 자율성을 기르는 등 그 교육적 가치가 높다[5,6].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되며, 한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3]. 즉,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유아적 심성이 점차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분담해갈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7].

반면, 유아기는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가는 시기이지만, 일상에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즉, 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역경과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므로 이를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8]. 또한 유아기는 회복탄력성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회복탄력성이 잘 형성될수록 유아들은 적절한 성장을 거쳐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9].

회복력이 강한 유아는 실패를 했을 때 주저앉기보다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한다. 또래의 놀림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는 유아에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 때

문에 실패와 역경이 반복되는 유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유아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대인관계능력의 증진이 필요하다[6,10].

이같은 필요성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전래놀이를 적용한 다양한 사회성 발달관련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놀이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7,11-13]. 특히, 기존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전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래놀이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핵가족과 산아제한 등의 문제로 전통놀이의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조부모의 부재로 전래놀이의 단절에 영향을 주고, 외동이 많아짐에 따라 형제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전래놀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를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14]. 즉, 기존 많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유아들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전래놀이가 보다 효과적임을 생각할 때, 유아교육 현장에서 대집단형태의 놀이로써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으로서의 전래놀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과 정서발달은 물론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기르는데 매우 적합한 소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맑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놀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대동놀이 형태의 전래놀이를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전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 B읍에 소재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2개원에 재원중인 유아 만5세 유아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래놀이집단은 B유치원의 만5세 유아 22명(남:13명, 여:9명)이었고, 바깥놀이집단은 같은 B읍에 소재하고 있는 D유치원 만5세반 유아 22명(남:9명, 여:13명) 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및 평균 연령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ildren's gender and average age

Group	Sex		Total	Average age
	Male	Female		
Traditional play group	13	9	22	5 years and 9 months
Outdoor play group	9	13	22	5 years and 8 months
Total	22	22	44	

2.2 연구도구

2.2.1 사회적 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수경[15]이 제작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 등 세가지 요인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에 관련된 9개 문항과 협조성에 관련된 9개 문항, 사교성에 관련된 5개 문항 등 총 23문항이다. 교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검사의 각 문항을 읽고,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능력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678이며, 하위요인별 주도성은 .919, 협조성 .902, 사교성 .946으로 나타났다.

2.2.2 회복탄력성 검사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eivich & Sartte[16]가 제시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이지현[8]이 재구성 및 보완한 유아용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교수와 동료교사 2인(경력 21년, 20년)의 자문을 구하여 회복탄력성 척도 각 문항별로 유아의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그림을 선정하여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정서조절력, 충동억제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의 7개 하위요인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3개 문항씩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방법은 연구자가 문항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제시한 후 유아의 자신이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내용과 자신이 일치하는 정도를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 중에서 다시 선택하도록 하였다. 유아가 선택한 그림과 원의 크기에 따라 한 문항 당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4점, 낮은 경우에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복탄력성의 전체 신뢰도는 .612이며, 하위요인별 정서조절력은 .759, 충동억제력 .584, 낙관성 .591, 문제해결력 .536, 공감능력 .512, 자기효능감 .72, 적극적 도전성 .75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검사자 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였으며 2일간의 검사자 훈련과 1주간의 사전검사, 7주간의 실험처치, 1주간의 사후검사로 이루어졌다.

2.3.1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2012년 6월 1일 2012년 6월 4일 까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 4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능력 검사와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능력 검사는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 담임교사가 유아를 관찰하여 평가하였으며, 회복탄력성 검사 역시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 담임교사가 교실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 개별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2.3.2 실험처치

본 연구는 2012년 6월 5일~2012년 7월 19일 까지 7주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은 일과운영 시간 중 점심식사 후 바깥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즉, 실험집단에게 제시한 전래놀이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하며,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활동,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 등의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 지침서와 전래놀이 관련 도서[17,18], 선행연구들[7,19-22]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은 동시간대에 유치원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바깥놀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전래놀이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활동과정과 선정된 전래놀이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activity process between traditional play group and outdoor play group

Group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Experimental treatment	Traditional play	Outdoor play
Activity period	June 5~July 19, twice a week, Tuesday/Thursday(Total 14 times) Outdoor play activity time after lunch(40')	
Activity process	Large group-type traditional play	Free play using outdoor facilities(Assorted play equipments, sand grounds)

[Table 3] Traditional play period and activity name

Period	Activity days	Activity name
1Week (6.5~6.8)	6. 5.	Gate play
	6. 7.	Why did you come to our house?
2Week (6.11~6.15)	6. 12.	Catch-and-chase

2Week (6.11~6.15)	6. 14.	Fox! what are you doing?
3Week (6.18~6.22)	6. 19.	Imitating tortoise
	6. 21.	Striking a stone
4Week (6.25~6.29)	6. 26.	Hide-and-peek
	6. 28.	Snail shell play
5Week (7.2~7.6)	7. 3.	Counting leg with palm
5Week (7.2~7.6)	7. 5.	Turning in a circle to the left
6Week (7.9~7.13)	7. 10.	Tying or loosening hands
	7. 12.	Catching an end child in a row of line
7Week (7.16~7.20)	7. 17.	Mother and her young play
	7. 19.	Describing an action that ties bracken

2.3.3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전래놀이를 활동이 끝난 후 2012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사후검사 방법은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에서 전래놀이 집단의 본 연구자와 바깥놀이 집단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2.3.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전래놀이 활동을 실시한 후 전래놀이가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전래놀이 활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능력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ocial competence test score

Classification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4.483	5.649	5.686
	SD	0.841	0.253	-
Outdoor play group(N=22)	M	4.834	5.365	5.322
	SD	0.594	0.367	-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래놀이를 실시한 실험 집단은 사전검사에서 4.483점을 사후검사에서는 5.649점으로 1.166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를 실시한 비교집단의 사전검사는 4.834점, 사후검사는 5.365점으로 0.531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결과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집단효과는 F=19.218로 전래놀이 수업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사회적 능력 점수에서 p<.001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of social competence test score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social competence	1.279	1	1.279	18.070 ^{***}
Group	1.360	1	1.360	19.218 ^{***}
Error	2.902	41	.071	
Total	5.028	43		

^{***} p<.001

3.1.1 전래놀이 활동과 사회적능력 하위요인별 분석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est score on sub-factors of social competence

Classification		Pre test	Post test	Adj. mean	
Independence	Traditional play group(N=22)	M	4.471	5.583	5.647
		SD	0.991	0.428	-
	Outdoor play group(N=22)	M	4.976	5.432	5.375
		SD	0.631	0.213	-
Cooperatio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4.879	5.758	5.767
		SD	0.891	0.276	-
	Outdoor play group(N=22)	M	4.934	5.308	5.298
		SD	1.140	0.681	-
Sociality	Traditional play group(N=22)	M	4.082	5.591	5.644
		SD	1.442	0.514	-
	Outdoor play group(N=22)	M	4.591	5.355	5.301
		SD	0.755	0.432	-

[Table 7]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of test score on sub-factors of social competence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independence	1.757	1	1.757	23.585***
Group	0.730	1	.730	9.800**
Error	3.054	41	.074	
Total	5.047	43		
Pre-cooperation	5.402	1	5.402	37.258***
Group	2.417	1	2.417	16.671***
Error	5.945	41	.145	
Total	13.570	43		
Pre-sociality	2.423	1	2.423	14.089**
Group	1.228	1	1.228	7.143**
Error	7.050	41	.172	
Total	10.087	43		

p<.01, *p<.001

Table 6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래놀이를 실시한 집단의 사회적능력 첫 번째 하위요인인 주도성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4.471점을 사후검사에서는 5.583점으로 1.112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를 실시한 비교집단의 사전검사는 4.976점, 사후검사는 5.432점으로 0.456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 실시결과 집단효과는 F=9.800으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주도성 점수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주도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래놀이를 실시한 집단의 사회적능력 두 번째 하위요인인 협조성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4.879점을 사후검사에서는 5.758점으로 0.879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를 실시한 집단의 사전검사는 4.934점, 사후검사는 5.308점으로 0.374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 실시결과 집단효과는 F=16.671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협조성 점수에서 p<.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협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능력 세번째 하위요인인 사교성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4.082점을 사후검사에서는 5.591점으로 1.509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4.591점, 사후검사는 5.355점으로 0.944점이 향상되었다. 이리

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 결과 집단효과는 F=7.143으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사교성 점수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교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2 전래놀이 활동과 유아의 회복탄력성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회복탄력성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esilience test score

Classification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3.136	3.606	3.633
	SD	0.333	0.263	-
Outdoor play group(N=22)	M	3.311	3.490	3.462
	SD	0.263	0.230	-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래놀이를 실시한 집단은 사전검사에서 3.136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606점으로 0.47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3.311점, 사후검사는 3.490점으로 0.179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집단효과는 F=5.529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회복탄력성 능력 점수에서 p<.05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9]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of resilience test score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resilience	0.374	1	0.374	7.000*
Group	0.295	1	0.295	5.529*
Error	2.191	41	0.053	
Total	2.714	43		

*p<.05

3.2.1 놀이 활동과 유아의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별 분석

[Table 10]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est score on sub-factors of resilience

Emotion regulation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2.985	3.727	3.736
	SD	0.559	0.265	-
Outdoor play group(N=22)	M	3.288	3.333	3.325
	SD	0.507	0.504	-
Impulse control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3.061	3.652	3.665
	SD	0.511	0.391	-
Outdoor play group(N=22)	M	3.303	3.576	3.562
	SD	0.590	0.312	-
Optimism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3.424	3.621	3.644
	SD	0.495	0.361	-
Outdoor play group(N=22)	M	3.576	3.652	3.629
	SD	0.506	0.317	-
Problem-solving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3.152	3.561	3.543
	SD	0.501	0.508	-
Outdoor play group(N=22)	M	3.061	3.379	3.396
	SD	0.511	0.452	-
Empathy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2.939	3.424	3.464
	SD	0.550	0.401	-
Outdoor play group(N=22)	M	3.182	3.394	3.354
	SD	0.632	0.521	-
Self-efficacy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3.258	3.652	3.673
	SD	0.599	0.405	-
Outdoor play group(N=22)	M	3.455	3.606	3.585
	SD	0.431	0.394	-
Active challenge		Pre test	Post test	Adj. mean
Traditional play group(N=22)	M	3.333	3.667	3.673
	SD	0.544	0.411	0.071
Outdoor play group(N=22)	M	3.364	3.636	3.630
	SD	0.492	0.384	0.071

[Table 11]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of test score on sub-factors of resilience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emotion regulation	.039	1	.039	.239
Group	1.716	1	1.716	10.396**
Error	6.769	41	.165	
Total	8.515	43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optimism	0.956	1	.956	10.093**
Group	0.003	1	.003	0.027
Error	3.883	41	.095	
Total	4.848	43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impulse control	0.154	1	0.154	1.238
Group	0.110	1	0.110	0.882
Error	5.103	41	0.124	
Total	5.321	43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problem-solving	1.627	1	1.627	8.257**
Group	0.234	1	0.234	1.187
Error	8.080	41	0.197	
Total	10.071	43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empathy	1.614	1	1.614	8.874**
Group	0.129	1	0.129	0.708
Error	7.457	41	0.182	
Total	9.081	43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self-efficacy	0.533	1	0.533	3.550
Group	0.082	1	0.082	0.546
Error	6.159	41	0.150	
Total	6.715	43		
Classification	SS	df	MS	F
Pre-test on challenge	2.130	1	2.130	19.339***
Group	0.021	1	0.021	0.188
Error	4.516	41	0.110	
Total	6.657	43		

p<.01, *p<.001

Table 10과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래놀이를 실시한 집단의 회복탄력성 첫 번째 하위요인인 정서조절력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2.985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727점으로 0.742점 향상되었다. 일반적 바깥놀이를 실시한 비교집단의 사전검사는 3.288점, 사후검사는 3.333

점으로 0.045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효과는 $F=5.529$ 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정서조절력 점수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 두 번째 하위요인인 충동억제력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3.061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652점으로 0.591점 향상되었다. 일반적 바깥놀이집단의 사전검사는 3.303점, 사후검사는 3.576점으로 0.273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효과는 $F=0.882$ 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충동억제력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세 번째 하위요인인 낙관성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3.424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621점으로 0.197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3.576점, 사후검사는 3.652점으로 0.076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효과는 $F=0.027$ 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낙관성 점수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네 번째 하위요인인 문제해결력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3.152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561점으로 0.409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3.061점, 사후검사는 3.379점으로 0.318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효과는 $F=1.187$ 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문제해결력 점수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다섯 번째 하위요인인 공감능력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2.939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424점으로 0.485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3.182점, 사후검사는 3.394점으로 0.212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집단효과는 $F=0.708$ 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공감 능력 점수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여섯 번째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3.258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652점으로 0.394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3.455점, 사후검사는 3.606점으로 0.151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집단효과는 $F=0.546$ 으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자기 효능감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일곱 번째 하위요인인 적극적 도전성 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서 3.333점을 사후검사에서는 3.667점으로 0.334점 향상되었다. 바깥놀이 집단의 사전검사는 3.364점, 사후검사는 3.636점으로 0.272점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결과를 공변인수로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집단효과는 $F=0.188$ 로 전래놀이 집단과 바깥놀이 집단의 사후 적극적 도전성 점수에서 $p<.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래놀이 활동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전래놀이를 실시한 집단이 유치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깥놀이 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에 비해 사회적 능력하위요인인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아의 회복탄력성은 전래놀이를 실시한 집단이 일반적인 바깥놀이를 진행한 집단보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살펴 보면 정서조절력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충동억제력, 낙관성,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향상에 있어서는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임을 시사해 주었다. 이는 외동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유아집단 공동체 놀이를 통해 주도성, 협동성, 사교성 향상과 회복탄력성에서도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13,15,19]. 이는 일반적인 바깥

놀이 활동이 유치원 외부의 놀이시설물을 활용하여 유아 개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르며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유아들에게 전래놀이를 통해 집단으로 또래와 상호 작용하며, 함께 협동하고 집단을 구성하여 놀이를 진행하는 등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전래놀이 활동을 통해 타인이해성, 또래간 상호작용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연구와[7],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 발달등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해 준다[11]. 또한 김희열[23]의 공기받기, 제기차기, 줄넘기놀이,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의 전래놀이가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을 하위요인으로 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유용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같은 정서조절력과 관련한 결과는 정서표현, 자기인식, 타인인식, 감정어휘, 정서조절, 정서어휘 등을 포함하는 유아의 정서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5]. 또한 전래놀이 동요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명한 내적통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 것과 일치하며[19], 전통놀이 활동이 유아의 정서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한다[13]. 그리고 정서조절력을 제외한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회복탄력성이 유아의 성장과 경험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24] 유아들을 양육해온 부모와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단 시간의 활동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또래친구들과 협동하며 잘 어울려 놀이하는 전래놀이를 적용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아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서 전래놀이는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나 유치원 교육활동주제인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일회성행사나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경험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에서 만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일 1시간의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바깥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래놀이를 경험하

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아울러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데 적절한 활동이라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이 또래들과의 전래놀이를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협동하기, 동기 등의 사회적 기술과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의 생각과 견해를 인식하며 도와주려는 노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각도로 탐색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갖게 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흥미를 보이고 융통적이며, 자발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전래놀이 교육을 야외활동으로 적극 권장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 유아의 두렵거나 불안하고 슬픈 기분도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놀이가 유아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의미 있는 경험이란 것을 인식하고, 특히 전래놀이가 주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발달과 수준, 흥미를 고려한 전래놀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특정지역 소재지에 국한한 점에서 결과를 전국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지역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C. O. Park, N. Y. Chung, and K. A. Lim,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Hakmunsa, 2006.
- [2] H. K. Dan,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Textbook, 1991.
- [3] E.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Playfulness and Social Ability and Self-Concept*. M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8.
- [4] H. S. Kim. *The Effects of Traditional Games Conducted through a Group-game: Teaching-methods on 5 Year Old Children's Societal Development*. MS Thesis Incheon University, 2008.
- [5] The Ministry of Education, *Guidance Data on Educational Activities for Children's Traditional Play*. The Ministry of Education. 1993.
- [6] H. S. Sin,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Play on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Resilience*. M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7] H. S. Kweak, *The Effect of Korea Traditional Play Activity on You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M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4.

[8] J. H. Lee, The General Trend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Resilience of 5-year-olds Children and Resilience of Their Parents.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9] Y. M. Jung, Relations Among Resilience,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Gender of 5-Year-Olds. M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1.

[10] J. Y. Park, *Young Children's Resilience*. Geuldam Publisher, 2012.

[11] M. K. Choi, The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Plays on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4.

[12] B. R. Lee, The Effects of the Traditional Play with Rhythm on the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Self-concept of Children. M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0.

[13] S. A. Kim, The Effect of Traditional Playing Activitie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s. M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0.

[14] S. J. Lee, and Y. J. Oh, "An Integrated Experiential Activity Program Based on Traditional Play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asic Athletic Abilit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Physical Education*, Vol.10, No.2, pp. 23-41, 2009.

[15] S. K. Woo, A Structural Analysis on Hyo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Ph. D.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2002.

[16] K. Reivich, and A. Shatte,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2003.

[17] S. H. Lee, and H. M. Park, *101 Korean Traditional Plays*. Sakyejul, 1999.

[18] K. J. Ko, *Children! What do You Like to Play Today?*. Book Communications, 2009.

[19] M. O. Yoon,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Activity Program Using Child-song with Korean Traditional Play on Kindergarteners Socio-emotional Ability. MS Thesis KAYA University, 2004.

[20] H. J. Kim,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Play on Arithmetic Ability and Algebraic Thinking in Young Children. MS Thesis Korea University, 2009.

[21] J. H. Lee, A Study of Effectiveness of the Traditional Game Activities on the Self-Leadership and the Concept of the Ego of a Child. M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0.

[22] H. S. Park,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Play on Self-control Ability and Social Ability of Young Children. M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0.

[23] H. Y. Kim, The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Games

on Self-esteem and Sociability. MS Thesis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2002.

[24] H. J. Koo,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Effect of a Resilience improving Program Using Picture Books with Young Children. Ph. D.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2010.

김 정 겸(Kim Jeong Kyoum)

[정회원]



- 1988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사)
-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97년 10월 ~ 2001년 2월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유아교육

신 현 숙(Shin Hyun Sook)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학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판문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교사

<관심분야>

유아교육